

<지리산국립공원 생태관광 프로그램>

남명 조식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지리산 유람길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일정표>

시 간	주요일정	세부내용
11:00~11:10	[남명기념관] ○ 오리엔테이션	-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 지리산국립공원 소개 - 유의사항 전달
11:10~12:00	[남명기념관] ○ 남명기념관 해설 ○ 남명의 사상 알기	- 남명기념관 둘러보기 - 산천재와 남명매 - 남명 조식의 敬義 사상 배우기
12:00~13:30	○ 점심식사	- 인근식당 - 이동(시천면~대원사 계곡길)
13:30~14:30	[대원사 계곡길] ○ 생태해설	- 대원사 계곡길 역사 및 생태해설 (소막골~방장교)
14:30~16:00	[대원사, 대원사 계곡길] ○ 생태해설	- 대원사 사찰이야기 - 대원사 계곡길 역사 및 생태해설 (방장교~유평마을)
16:00~16:30	[유평마을] ○ 마무리	- 소감나누기 및 설문조사 - 마무리

<시나리오>

<h2 style="margin: 0;">남명 조식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지리산 유람길</h2>	<table border="0"> <tr> <td style="padding-right: 10px;">활동장소</td> <td>남명기념관 및 대원사</td> </tr> <tr> <td>소요시간</td> <td>4시간(중식포함 5시간30분)</td> </tr> <tr> <td>참가대상</td> <td>청소년, 성인</td> </tr> <tr> <td>참가인원</td> <td>30명 이상(20명/해설사)</td> </tr> </table>	활동장소	남명기념관 및 대원사	소요시간	4시간(중식포함 5시간30분)	참가대상	청소년, 성인	참가인원	30명 이상(20명/해설사)
활동장소	남명기념관 및 대원사								
소요시간	4시간(중식포함 5시간30분)								
참가대상	청소년, 성인								
참가인원	30명 이상(20명/해설사)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리산국립공원의 대원사계곡길에서 자연을 체험하고 소중함을 안다. 지역문화체험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그 지역 문화에 대해서 알아본다.
-------------	--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수막, 자연체험도구
------------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물 체험 시 자연물을 꺾거나 따지 않고 주워서 활용하도록 함
-------------	---

시 간	내 용	비 고
11:00 ~ 1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말, 프로그램 소개 - 지리산국립공원 소개 - 안전교육(활동 시 지켜야 할 수칙 공유) 	10분 (남명기념관)

11:10 ~ 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명선비기념관 둘러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를 통한 남명조식 선생의 삶 엿보기 • 산천재와 남명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학을 양성한 산천재에 얽힌 이야기 - 남명선생이 직접 심은 남명매에 관한 이야기 - 남명 조식의 敬義(경의) 사상 배우기 	50분 (남명기념관)
12:00 ~ 1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심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시간 포함(시천면→대원사 계곡길) 	90분 (인근식당)
13:30 ~ 1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원사 계곡길 역사문화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원사 계곡길과 관련된 역사 및 생태 이야기 (대원사계곡길 입구~방장교) 	60분 (인근식당)
14:30 ~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원사 계곡길 역사문화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구니스님들의 3대 참선도량인 대원사의 이야기 - 대원사 계곡길과 관련된 역사 및 생태 이야기 (방장교~유평마을) 	90분 (대원사, 대원사 계곡길)
16:00 ~ 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감나누기 및 설문조사 	30분 (유평마을)

※ 해설프로그램은 운영 시기의 자연·문화자원 상태에 따라, 체험프로그램은 기상여건 및 운영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사 및 프로그램 일정 소개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리산국립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할 저는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000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오늘 생태관광 시작부터 끝날 때 까지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리산국립공원 소개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곳은 지리산국립공원입니다.

지리산은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중 1호 국립공원으로 산악형 국립공원 중에는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전남, 전북, 경남 세 개의 도와 남원시라는 1개의 시와 함양, 산청, 하동, 구례 4개의 군에 걸쳐져 있어 그 넓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은 어머니의 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들어서면 골짜기는 좁지만 산을 들어서면 골짜기가 넓고 깊어 한번 길을 잃으면 찾아 나오기가 힘드니 반드시 법정 탐방로를 이용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산다는 지리산, '백두대간의 기가 흘러넘친다.' 하여 두류산, 또는 방장산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이 곳 동쪽 자락에 자리한 대원사 계곡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출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대원사계곡길 걷기

대원사 계곡 길은 경상남도에서 지정한 도문화재114호로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계곡 윗쪽에 자리한 유평마을 주민들과 대원사 스님들의 오랜 시간 삶과 함께 굽이굽이 흘러내리는 계곡의 아름다움은 계곡을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곳입니다. 지금 계절에 만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때죽나무, 쪽동백나무의 하얀 꽃과 향기는 지금 시기에만 느낄 수 있으니 천천히 걸으며 누리보시기 바랍니다. 유홍준 교수는 대원사 계곡을 '남한 제일의 탁족처'라고 칭찬을 할 만큼 그 맑은 계곡입니다.



대원사 계곡



쪽동백나무

자, 계곡을 한번 보시겠어요? 계곡의 바위가 동그랗게 파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데요? 저것을 돌개구멍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용어로는 포트 홀 이라고도 합니다. 대원사 앞 저 돌개구멍은 옛날 스님들께서 음식을 보관했던 곳이라고도 합니다. 자연의 힘으로 만든 다양한 모습의 바위와 그 것을 이용한 스님들의 지혜가 참으로 귀한 것 같습니다.

이 계곡에는 맑고 깨끗함과 함께 담비, 수달, 원앙 등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동물들도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곡을 오르내리실 때 혹 내가 버린 쓰레기가 아니더라도 주워주시고, 자기가 가지고 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 가져가시는 국민의 자연환경보호의 권리를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대는 선비들의 유람기에서 장항동으로 불리어지는 곳입니다. 장항(獐項)은 우리말로 노루목이라고 불립니다. 노루목은 길고 가는 고개라는 뜻입니다.

산청군지에는 덕교리 일대를 장항동이라고 하는 설이 있고, 구 소막골야영장 인근을 장항동이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장항동기'를 쓴 하달홍 선생의 글에서는 대원사 일원을 장항동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항동은 대게 두류산 동쪽의 아름다운 산수가 모인 곳이라고 합니다. 대원사 계곡이 흐르는 그 어딘가에 장항동이 있었음을 추측해 봅니다. 남명선생이 장항동으로 유람을 하였고, 겸재 하홍도 선생의 시에도 대원사 계곡이 깊고 그윽하여 고요하다고 표현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개에 흔히 있는 노루목이라는 지명이지만 대원사계곡을 끼고 있는 노루목, 즉 장항동은 대원사 계곡의 골짜기가 깊고 그윽하여 신선처럼 진경을 유람하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

이곳은 일주문입니다. 세속과 사찰의 세계를 경계 짓는 문이기도 하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세계에 증진하라는 뜻을 가진 일주문은 왜 대문이 없는 줄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처님의 자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곳에서부터 약 3~4분정도만 걸으면 대원사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묵언으로 걸으시며, 대원사계곡의 시원한 물소리와 바람으로 마음의 모든 번잡함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일주문 오른쪽을 보시면 깊게 패인 상처를 가진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 것은 일제강점기때 일본이 우리나라 전역의 소나무 송진을 채취하여 전쟁물자인 송탄유를 제조하기 위해 낸 상처라고 합니다. 소나무에 'V'자로 상처를 내서 나온 송진을 받아 끓여서 기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제가 송탄유를 항공유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조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실제로 항공유로 썼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망한 뒤 남은 송탄유를 어선의 연료로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원사

이 곳 대원사는 신라 진흥왕 때 세워졌습니다. 풍수지리학 적으로 세 번의 화재가 나게 되어있었다는데, 한번은 임진왜란 때 그리고 한번은 이름 모를 방화로, 마지막으로 여수순천 사건 때 군인들에게 쫓기던 사람들이 이곳 지리산까지 숨어들었고, 이 정보를 입수한 군인들에 의해 폭격을 맞아 불타서 전소 되었답니다. 그 후 만허당 법일 스님께서 이곳을 중건하시면서 그때부터 이곳 대원사는 비구니 사찰이 되었고 1955년부터 무려 33년간의 긴 세월 동안 이곳의 전각들을 하나하나 세우셨습니다. 지금은 전국의 비구니스님들이 공부하시는 참선도량 중 3대 사찰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대원사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대원사 다층석탑 보물1112호가 있고, 예쁘장한 여자 신을 모신 산신각, 그리고 대웅전의 청 단청이 이곳 대원사의 특징입니다. 사찰을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마음의 소원을 빌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꿈은 오래 된 사찰과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생태관광을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지리산 동쪽 자락 남명조식 선생의 경의사상과 국궁, 선비체험을 통해 색다른 배움과 즐거움을 느끼셨나요? 저희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생태관광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국립공원 자연의 소중함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줄 수 있는 지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원사 일주문



대원사 문화해설